



해설 2021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정기인사

# 변화·혁신 방점... 인력 빼가기는 여전

###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깜짝 발탁... 여성 고위직 약진도 “제주형 뉴딜 선제 대응·후반기 업무 안정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자로 단행한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의 깜짝 발탁과 함께 고춘화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등 여성공무원의 전진 배치가 주요 특징이다.

13일 정기인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상의 회복과 함께 경기침체 및 소비부진 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사 배경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용안정은 물론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제주형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부시장에 서부(한

경) 출신인 이상헌 공항공청지원단장이 발령됐다. 안동우 시장이 등부(구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 이전에도 서부 출신 공직자 4명 정도가 거론된 바 있다. 등·서부 간의 지역 안배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업무 능력에 따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힘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 공무원의 전진 배치가 특징이다. 고춘화 국장이 교육에서 복귀하자마자 직위 승진하며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자리를 꿰찼다. 또한 예산담당관에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고순심 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직무대리에 장지미 평화사업팀장이 취임

승진하며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소수직렬인 방송통신 직렬 1명이 최초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후속을 대비하고 제주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인력 전진 배치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며 “제주형 뉴딜정책의 선제적 대응과 민선 7기 후반기 현안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도 158명(2급 2, 3급 8, 4급 16, 5급 33, 6급 37, 7급 47, 8급 15명 등)이 승진하는 등 ‘승진잔치’는 여전했다. 지난해 4·13 총선 이후 선거공신 등을 포함한 승진자만 171명에 이어 이번에도 승진 폭이 컸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초고속 승진으로 향후 정세현상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10여년 만에 시도했던 행

정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무산된 것도 이번 승진인사에 영향을 줬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자리들이 그대로 남는 데다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신청한 고위직의 공백을 연쇄적으로 채우면서 승진잔치가 벌어졌다.

행정시 교류도 94명에 대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전출보다는 전임이 우세했다. 전출자는 36명(제주시 18, 서귀포시 18)이며 전임자는 이보다 22명이 많은 58명(제주시 28, 서귀포시 30)이다. 이같은 인적 교류의 불균형으로 행정시의 업무는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6~8급을 중심으로 ‘인력 빼가기’가 이뤄지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승진을 위해서는 선거와 도 분청 근무가 필요조건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귀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 2019년 채용한 10인 미만 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추가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부담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실제 부담액으로 사회보험 공단에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FAX(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따뜻한 날씨 속 역사 탐방 한파가 물러간 13일 제주목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 역사 탐방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에 160억원 투입

도, 지하수연구센터 본격 운영 통합 물관리 체계 중점 추진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제주 물정책사업에 160억원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 지

하수연구센터 운영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지하수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 ▷제주형 물 산업 육성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 지하수연구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하수 계획·조사·관리 추진과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종합적인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4억원을 투입한다.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 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및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14억원을 투입해 불법 지하수 단속과 지하수 이용질

서도 확립해 나간다.

또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물 재이용계획 수립에 58억원을 투자해 제주 특성에 맞는 물 산업 육성과 체계적 물 순환구조를 확립한다.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지하수관정 내부조사와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확대, 행정수도 수질검사 강화 등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 40억원, 용천수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용천수 친환경적 활용방안 발굴과 친환경 정비사업에는 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지하수의 중요성과 오염 방지, 물 절약에 대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확대와 지하수정책 민간참여를 위한 도민 거버넌스 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 물 정책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오염원 증가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제주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를 보전·관리해 나가겠다”며 “혁신적인 지하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정 수질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공항 소음 피해 금전적 보상 근거 마련

### 국회서 공항소음방지법 발의

공항 소음지역 피해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경남 김해시 을)은 13일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항소음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김 의원은 “공항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군용비행장 소음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기존 보상금 지급 외에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용천수 관리주체로부터 대상지를 신청받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읍·면·동 또는 마을자

치회 등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거나 관리 의지가 있는 용천수 중 복원이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사업 신청은 각 행정시(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가능하다.

도는 ‘2021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국민무료 내선공사실무및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취득과정**

접수기간 2021년 01월 05일 ~ 2021년 01월 31일 (정원22명 초과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교육기간 2021년 02월 01일 ~ 2021년 07년 30일 (6개월, 125일, 870시간)

교육시간 09:00 ~ 17:00 (7교시, 점심시간 12:00 ~ 13:00)

교육내용 전열, 조명, 동력설비, 배선, 배관, 태양광설비, 전기기사 필기·실기, 신재생에너지기사 필기·실기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합격 (총 23명 응시)

“2020 4회 전기기사” 87% 최종합격 양\*호, 나\*철, 고\*빈, 변\*구, 이\*진, 김\*호, 송\*원, 김\*철, 박\*욱, 김\*수, 김\*진, 김\*철, 문\*기, 문\*국, 정\*우, 김\*철, 문\*인, 임\*봉, 현\*림, 김\*희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그랜드보청기**

**2021년 신축년 감사 이벤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마킹 해드립니다.\*

**최대 50~70%할인**  
탐나는전·제로페이 가능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니다!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N/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리일보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음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정환**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